

# 김종성과 승효상 작품의 허공에서 표현되는 치유성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nse of Healing expressed in the Void Space of Jong-soung Kimm and Hyo-sang Seung's works

김 광 호\*  
Kim, Kwang-ho

### Abstract

The criterion of 'void space'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sense of unusual experiences to afford the improvement of the value of cultural life with the sense of Healing. The more chances to spiritual converse with nature and oneself, the higher the value of healing experiences that one has will grow. This analysis has been done on the premises that this is derived from the inner conversation with 'nature' and 'oneself', as well as among 'others'. In other words, while the 'community void' affords programmatic aspect in relations between humans, the 'ecological void', systemic aspect in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meditation void', the aspect of image in relations between human and human's inside. Jong-soung Kimm and Hyo-sang Seung are Korean architects who have consistently expressed contrastiv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void space' in their contemporary works.

While the void space of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s have shown various external forms, there has been a trace deeply rooted from the absolute and neutral concepts of the masters of Modern architects and 'Madang' of Korean traditional space. The integrated composition in the works of Jong-soung Kimm suggested integrated characters and healing affordances of 'Madang', but it hardly showed the poetic simplicity that could be seen from the image of traditional 'Madang'. On the other hand, the works of Hyo-sang Seung represented the simple and silent image of 'Madang', but showed fragmented characteristics that didn't sufficiently afford the integrated healing functions of 'Madang'.

키워드 : 허공, 공동체적 허공, 생태적 허공, 사색적 허공, 치유성

Keywords : void space, community void, ecological void, meditation void, sense of healing

## 1. 서 론

### 1.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건축의 공간은 쓰임새가 명확하고 일상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과 불확정적 성격으로 비일상적인 여유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가 실공(solid space)이라고 말하면 후자는 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허공(void space)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서양과 동양의 전통공간에서도 이러한 허공을 두는 행위는 항상 존재하여 온 것으로 상징적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가 아닌 공간의 특성을 통해 다양한 감각과 감성의 욕구를 충족하고 안정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지원함으로써 '치유성(sense of healing)'을 획득하는 방편

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치유(healing)'의 개념은 물리적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아우르며 자연스러운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균형상태의 극복 또는 예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양보다 서양전통에서 강조해 온 '치료(treatment)'의 인위적이고 타율적인 측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감각으로 접하는 실공보다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내적 감각으로 접하는 허공의 해석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치유성(sense of healing)은 치유적인 감각을 일컫는 것으로 건축가의 공간디자인 접근에 있어서 치유적 내용에 관련된 공간 표현의 성향이라는 관점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외부공간에서는 건물이나 땅과 대비되는 하늘과 물의 공간 또는 사용빈도가 낮은 땅이 허공이라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허공은 건축적 구도에 포함되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2008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함.

<sup>1)</sup>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2004), 미건사. p.17

체험적 의미를 중심으로 볼 때 허공은 심리적 해방의 측면에서 공간표현의 핵심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부 공간의 체험 여정에 있어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궁극적 목표로 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신체가 도달 할 수 없는 허공과 가장 가깝게 면하는 실공의 가장자리 부분은 상호경계(interface)로서 심리적 안정과 해방이란 치유의 상호보완적 양 측면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치유성 체험의 분석은 주로 이 상호경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국건축은 근대화(modernization) 이후 오랫동안 일반적인 실공 위주의 공간구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현대도시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유감 있는 공간적 이미지가 감소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대건축에서 단순미(simplicity)를 통한 안정감과 해방감을 주는 장소로서 허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통 한옥마당과 대청마루 등에서 허공과 실공이 다양한 구도로 만나며 생성시키는 풍부한 체험적 특성들은 20세기 말 이후 형태중심의 상징적 개념에 대한 관심보다 공간과 환경자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그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실험이 활발하여 졌다. 생태건축운동의 근원적 목표는 인간의 총체적인 치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건축이론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허공은 단지 물리적인 시스템의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이미지적인 측면까지 통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인간의 행태와 심리를 면밀히 고려한 치유적 지원성향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허공은 무형의 존재로서 건축의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의 측면을 초월한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점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와 19세기 이전까지의 시기보다 중성적, 보편적 그리고 본질적인 특성이 강조된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정신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건축의 허공에 관한 논의는 근대시대를 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중성과 승효상은 현대 한국 건축가중 지속적으로 통일성있는 이미지가 강한 디자인 어휘를 통해 현대 한국 건축의 역사에서 비중 있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건축가의 허공개념을 치유성을 기준으로 근대건축의 영향이란 맥락에서 비교 연구하여 현 한국건축의 시점에서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허공과 실공의 상호경계(interface)에 관한 치유적 디자인 사고(thinking)를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김중성과 승효상은 디자인을 통한 형태구축이전에

상징적 의미 또는 은유의 측면보다 무형적인 허공간의 현실적인 체험의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미학적 표현성은 그 자체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간 치유(healing)의 의미를 상당수 동반하고 있다는 가정이 이 연구에서 부각된 측면이다.

이들 건축가의 비교연구에 앞서 이들의 디자인 어휘에 큰 영향을 준 배경으로서 근대건축의 허공개념이 체험적 치유성의 대조적 의미들을 기준으로 고찰되었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비교 대상인 각 건축가들의 허공에서 표현되는 ‘치유적 공간요소’의 고찰이다. 여기서 ‘치유적 공간요소’란 치유성의 목적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와 다른 치유개념의 전인적(holistic)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양의 건축이론가 입장이면서도 외면과 내면의 복합적인 측면들을 아우르는 기존의 연구인 Michael Benedict의 경우를 참조 하여 그 해석기준의 항목들을 설정하였다(2장).

허공의 치유성에 대한 Michael Benedict의 관념적인 개념을 참조하여 해석한 작품사례들과 더불어 전통 한옥의 마당은 현대 한국 건축가들이 허공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그 뿌리 깊은 체험의 기억으로 인해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반드시 참조하게 되는 대상이기에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즉 서구적 전통으로서 구체적인 건축가나 이론가에 의한 개념이 아닌 ‘마당’의 정신은 간접적이고 자율적인 치유적 공간요소 해석의 방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입되었다.

본문의 연구내용과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허공’의 체험적 치유의 의미 해석 기준으로 Michael Benedict의 개념 - 외면적인 행태적 체험중심의 ‘Emptiness1’개념과 내면적 이미지의 체험 중심의 ‘Emptiness2’개념 - 에 대한 고찰

둘째; 김중성과 승효상의 허공개념에 큰 영향을 준 근대(modernism)건축 시대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꼬르뷔제, 루이스 칸, 미스 반 데 로에와 같은 거장들과 동시대에 지어진 서울도시한옥마당의 허공과 치유적 개념에 대한 사례분석

셋째; 김중성과 승효상 작품에서의 치유적 허공개념과 근대 거장 건축 및 한옥마당으로부터의 영향 비교 분석

## 2. 허공의 두가지 치유적 의미 분석기준에 관한 고찰

미국의 현대건축평론가인 Michael Benedict는 그의 저서 For an Architecture of Reality에서 실재적인(practical) 체험(experience)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로

서 ‘현실적임(realness)’을 내세우며 이는 ‘현존(presence)’, ‘의미(significance)’, ‘재질감(materiality)’ 그리고 ‘비어있음(emptiness)’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비어있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여 ‘비어있음1(emptiness1)’은 외연적 의미로서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음을 말하고 ‘비어있음2(emptiness2)’는 내면적인 감정의 이끌림이 작용하는 침묵(silence)이나 평형상태(equilibrium)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 이는 실공위주의 계획적 사고방식에서의 일상적 억압에서 사변적 이해를 통해 해방하는 동시에 고요한 안정감을 부각시키는 이론으로서 현실성과 추상성의 양 측면에서 공간의 치유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베네딕트는 비어있음이 시적이면서 상식적인 범주에서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필수불가결 요소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다른 세 가지 요소 중 ‘현존’과 ‘의미’는 인간의 두뇌 속에 작용하는 인지(cognition) 영역에 속한 개념이고 ‘재질감’은 인간의 감각이 작용하는 지각(perception)영역에 속한 개념이다. 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 비어있음은 인지되거나 지각되지 않는 무의식의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이미지개념을 중심으로 비일상적 프로그램의 개념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베네딕트는 인간의 정신과 감각이 가진 요구 조건들 중에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개념으로서 안정과 해방의 치유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비어있음을 밀도 깊게 다루어 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인간행태와 심리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양 측면에서 본론의 사례와 허공(void space)의 치유적의미를 분석하는 상세한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는 ‘Emptiness1’의 개념적 연장으로서 ‘인간행태’ 중심으로 허공의 비일상적 기능의 구체적 ‘지원성(affordance)<sup>2)</sup>’을 분석하는 것이다. 허공의 외면적 행태 개념중심의 치유적 특성은 실공(solid space)의 일상적이고 바쁜 사무적 환경에서 얻기 어려운 비일상적인 세 가지 대상과의 만남을 기능적으로 지원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연,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 간간히 일상의 분주함을 피한 가운데 말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을 통해 상호 교감하여 심리적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sup>3)</sup>. 이는 각각 Ecological void, Community void 그리고 Meditation void라고 부를 수 있고 서양건축에서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파편적이면서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Atrium, Hall, 그리고 Courtyard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통 공간에서는 이 세 가지 대상과 교감하는 행태(behavior)가 중심적이며 중성적인 장소인 ‘마당(Madang)’이란 한 장소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수용(accommodate)되어지는 특징을 보여 큰 대조를 보인다.

둘째는 ‘Emptiness2’ 개념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추상적 분석으로 허공을 통한 ‘내면적 이미지 image’ 변화를 고찰한다. 태양빛과 허공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인간의 외면적 행태보다 내면적인 심리상태변화에 관한 분석에 적합하다. 실공(solid space)에서는 빛의 존재가 매우 한정적으로 표현되나 허공을 통해 태양빛의 추상성은 보다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 그 표현의 방식은 태양빛이 우선적으로 부각시키는 대상에 따라 ‘인간성(sense of humanness)’, ‘시간성(sense of time)’, ‘조형성(sense of form)’ 그리고 ‘공간성(sense of space)’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생명을 가진 빛인 태양광이 인상 깊게 강조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가 인간의 실체적 존재 자체인 경우, 일출과 일몰로 이어지는 자연현상의 시간적 흐름인 경우, 고형물(solid)의 조각적 형태미인 경우 그리고 비물질적인 공간 자체를 통한 내면적 이미지인 경우 등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주제의 생명력의 존재성을 통해 Emptiness1개념의 외연성과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내면의 이미지 형성을 통한 심리적 치유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Emptiness1’개념의 하나이던 Meditation 행위와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치유성을 분석하는 관점이 인간 심리의 객관적 외부가 아닌 주관적 내부라는 측면에서 ‘Emptiness2’의 개념으로 설명된 것이다.

3,4장 본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하여 근대건축과 우리 한옥 마당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김종성 및 승효상작품에서 표현되는 치유적 허공개념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3. 근대건축(Modernism Architecture)의 치유적 허공개념 사례분석

#### 3.1 Frank Lloyd Wright의 허공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의 중심부 허공은 타인(others) 및 자아(self)의 내면과 대화하는 행위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 이 허공은 다중(public)의

2) 당시의 James J. Gibson이 고안한 전문용어로서 감각을 통한 지각을 통해 얻는 환경적 정보에서 제공되는 행동의 가능성을 일컫는다.

3) 마틴 부버는 20세기중반의 철학자로서 그의 대표적 저서인 ‘나와 너’에서 ‘영원한 너’로 인도하는 진정한 관계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하였다. 첫째는 ‘자연’, 둘째는 “타인”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이다. ‘생태적’, ‘공동체적’ 그리고 ‘사색적’이란 용어로 쓰인 이 논문의 허공개념에 관한 키워드들은 이러한 부버의 추상적인 철학적 관계성의 개념을 실질적 건축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합적 행태를 수용하여 문화적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큰 규모이지만 한편 천창(skylight)이 있고 내향적인 공간 구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사색(meditation)행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허공에 면한 부분 거의가 벽이 아닌 나선형 난간으로 개방됨으로서 Meditation보다는 Community sense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더 지원(afford)하고 있다. 이는 유기적인(organic) 공간개념으로서 한국전통의 마당이 한옥건물의 입면(facade)과 만나는 데 있어서의 개방성 정도(extent)와 유사하여 외면적 행태에서 총체적 치유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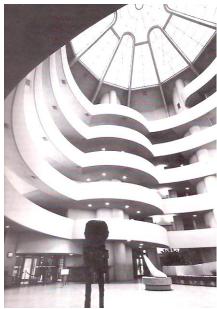


그림1. Wright, F.L, 구겐하임미술관 중심 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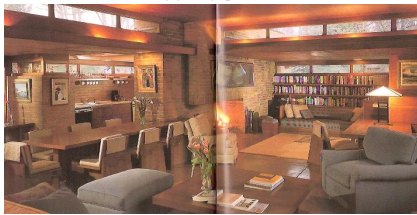


그림2. Wright, F. L, Goetch-Winckler House 거실

빛을 통한 내면적 이미지 측면에서 이 허공은 인간과 시간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천창의 빛은 간접적 매개체 없이 인간에게 직접 다다른다. 동측에서 서측까지 태양의 하루 동안의 궤적을 감지(perception)할 수 있는 높고 긴 고층창(clerestory)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적 흐름의 자연현상을 보다 인상 깊게 인지(cognition)할 수 있게 한다. 즉 라이트 작품에서 빛이 부각시키는 우선적 대상은 물질이나 공간보다도 근본적 내용인 인간과 시간의 존재인 것이다. 즉 자연과 상호관입하는 라이트 작품의 공간특성은 태양빛을 통한 인간과 시간성의 부각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보급형 개념의 유소니안(Usonian) 주택인 Goetsch-Winckler House(그림2)의 거실에서 동측에서 서측으로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고층창을 통한 태양광도입의 연속으로 이러한 시간성을 인지시켜주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생태적인 치유이미지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 3.2 Le Corbusier의 허공

통상성당의 허공은 집회소의 공적장소의 허공과 빛우물(light well)부분의 개인적 허공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다. 즉 Community를 위한 종교적 행위와 Meditation을 위한 종교적 행위가 완전히 구분되어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적 행위가 많은 프랑스 카톨릭 종교의 특성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이 많은 분절적인 공간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교적 치유성을 위해 효율적인 배치구성이 되고 있다.



그림3. Le Corbusier, 통상성당 내부

허공으로의 태양빛의 도입은 천정과 벽이 만나는 길고 가는 수평의 선과 두터운 콘크리트 벽체에 불규칙하고 리듬감 있게 뚫린 여러 개의 개구부(opening)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빛은 우선적으로 벽체나 천정면에 부딪히며 고형물(solid) 표면의 음영(shade)을 통해 재질감(texture)과 색채 및 형태의 특성이 잘 표현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개로 나뉘어 뚫린 빛의 유입구(inlet)들은 하루 전체에 걸친 연속적 시간성을 감지하도록 하기보다 부분적 시점에서의 조형에 대한 깊은 인상(impression)을 강조하고 있다.

### 3.3 Louis Kahn의 허공

예일대 영국 미술관의 허공은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와 허공주변의 기본적 공간구성이 흡사하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고 자아의 내면과 대화하는 행위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가 구겐하임보다 작고 허공에 벽면이 절반이상 면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Meditation행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림4. Louis Kahn, 영국 미술관 진입부 허공

영국 미술관 허공에서 빛의 도입은 어느 한 벽면이나 조형물에 스포트라이트가 되지 않고 확산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연속적인 태양의 궤적을 보여주진 않기에 시간의 차원을 감지하는 인간의 존재도 우선적 강조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확산되면서 도입되는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품질이나 인간이란 대상(object)과 호응하기보다 빛 그 자체의 침묵적 존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도입방식은 허공 그 자체의 비시각적(invisible)이고 간접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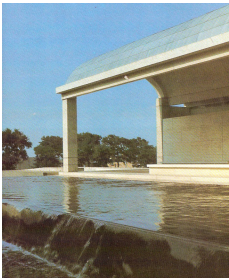


그림5. Louis Kahn, 김벨 미술관 외부수반과 보울트 천장의 포오치 허공부(좌), 그림6. 상층부 내부 중정(우)

김벨 미술관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허공이 외부공간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볼트(vault) 천정의 연못가 포오치(porch) 공간(그림5)으로서 다른 실공과 면하지 않고 독립적인 허공이다. 루이스 칸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한 장소인 이는 수평적 외부조망을 통한 사색행위가 지원되며 접근성이 좋은 외부공간이기에 타인 및 자연과 교감하는 치유성으로서의 행위가 골고루 지원되고 있다. 다른 장소는 꼭대기 층의 중정 공간(그림6)인데 이는 내향적인 공간구성으로 수직적 외부조망을 수용하고 있다. 이로서 이는 Meditation 및 자연과 교감하는 행위가 주로 지원되고 있다. 빛의 도입에 있어서는 외부공간이기에 건축적 장치로 조절된 빛이 도입되지 않아 전술한 인간성, 시간성, 조형성 그리고 공간성이 균등하게 강조되고 있다.

### 3.4 Mies van der Rohe의 허공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허공은 루이스 칸의 김벨 미술관에서와 같이 외부공간에만 존재한다. 내부에서 천장의 빛을 받는 허공은 미스 반 데 로에에게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정체된 공간보다 역동적으로 흐르는(fluid)공간을 선호한 그는 여기서 연못과 인체조각이 있는 외부공간의 허공을 고급 대리석 간막이(screen)로만 둘러싸이게 하여 조형성과 물성(materiality)의 단순미와 세련미를 통해 Meditation 및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성을 지원하고 있다.

빛의 도입에 있어서는 외부공간이기에 인간성, 시간성, 조형성 그리고 공간성이 모두 존재하나 고품질



그림7. Mies van der Rohe,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solid)이 부각되기에 조형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3.5 한국전통공간 의 마당 -가회동 한옥의 건축적 허공

근대의 시기 한국에서 건축화된 허공을 위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서울의 가회동 도시한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통건축에서 인간적 척도를 갖는 중정(courtyard)형태의 마당(Madang)은 흔한 것이나 이는 여러 채의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이기에 건축적 허공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회동 도시한옥의 마당은 단층의 고밀도 집합주거의 한 단위세대(housing unit)에서 하나로 감싸인 지붕사이에 중정형태로 있어 건축적 허공이라 볼 수 있다.



그림8. 서울 가회동 도시한옥의 전형적 중정 허공부

이는 유명건축가의 작품이 아닌 공공의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근대화 시기의 서울에서 전통공간의 정신(spirit)과 개발(develop)의 논리가 상호 절충되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서민을 위한 보급용 주택이어서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이 허공(마당)은 정신적 여유를 통한 치유성을 잃지 않게 하는 풍부한 체험적 요소를 갖고 있다. 한옥의 고유한 공간구성은 반외부공간인 대청마루를 통해 점차적으로 실공과 허공이 만나고 지붕 처마 밑의 어두운 그림자와 허공의 밝음(brightness)이 대비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 및 타인과 쉽게 친하여 교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하게 지원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수평적으로 간헐 공간이지만 1:1.5이상의 수직높이와 수평거리비율을 갖고 하늘방향으로만 개방된 공간구성은 편안하게 올려보는 시야각을 허용하여 내면적

인 사색행위를 통한 치유를 효과적으로 지원(afford)하고 있다. 이로서 도시 한옥은 외양적으로 매우 소박하고 단순하나 세 가지 치유적 행위들이 균형감 있게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지원되는 특성을 갖는다.

부유한 전통 양반주택에서 넓은 중정에 면해 수직적인 하늘로의 조망보다 수평적인 파노라믹(panoramic) 조망을 갖는 외향적인 공간구성으로 인해 자연 및 타인과의 교감이 강하게 지원되나 내면적인 사색 행위는 약하게 지원되는 현상은 이와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다.

빛의 도입에 있어서는 외부공간이기에 인간성, 시간성, 조형성 그리고 공간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내면적 치유의 이미지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 4. 김종성과 승효상 작품의 치유적 허공개념 비교분석

1980년경 이후 현대 한국 건축은 외양적으로 다양한 디자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 허공의 개념이 강조되면서도 일관성 있게 설정된 강한 디자인 어휘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지속한 건축가로서 김종성과 승효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다른 많은 건축가들도 허공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두 건축가와는 달리 장소와 시간별로 상당히 다른 디자인 어휘를 보여 준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류의 변화에도 잃지 않는 그들만의 신념에 의한 디자인 전통을 창출하였는데 이는 상대성을 강조하는 현대(contemporary)건축보다 앞의 3장에서 고찰한 근대(modern)건축의 절대성에서 강하게 받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허공이란 개념 자체가 근대에서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형태적 측면보다 내면적 개성이 표현되는 매개체로서 탐색해 볼 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 특성으로서 이러한 불변성과 심리적 여유를 통한 치유적인 가치를 다양한 변화성과 민첩한 구체성의 표현보다 높게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는 주된 본론의 내용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대표 작품들의 다양한 상호경계면(interface) 고찰을 통한 비교 분석이다.

##### 4.1 김종성의 허공 개념

김종성은 IIT건축대학의 미스 반 데 로에의 제자로서 보편적(universal)이고 융통성(flexibility)있는 공간을 강조하는 측면이 스승과의 두드러진 공통점이다. 그러나 그는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스 반 데 로에가 도입하지 않던 천창(skylight) 있는 허공을 적극 도입한다. 그의 허공은 한국적 마당의 전통에서 보이



그림9. 미스 반 데 로에, 바카디 사옥 내부 허공

그림10. 김종성, 육사도서관 내부 허공

는 프로그램적 총체성(totality)을 갖는데 이는 서구 전통의 허공처럼 프로그램별로 분리적이지 않고 중심의 한 장소에서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미스 반 데 로에는 서구전통의 영향으로 중심허공에서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심리적 치유성을 강조하지 않고 건물의 일상적 실공(solid space) 그 자체에 허공과 같은 단순한 여백의 감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김종성은 실공에서 미스 반 데 로에와 같은 공간 연출을 하면서도 중심적 허공의 치유적 장소로서의 공간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11. 김종성, 서울 힐튼호텔 로비 허공



그림12. 김종성, 경주 선재미술관 내부 허공

힐튼호텔의 로비(그림11)에 위치한 대규모 허공은 현관 홀 레벨기준으로 상하방향으로 모두 트이고 천창의 빛이 도입되어 계단을 돌아 내려가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내 연못이 있다. 이는 좁고 낮은 현관부분 공간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주 공간으로 강한 해방감을 주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텔 기능이 추구하는 공적인 공동체성과 조경적인 생태성을 통한 쾌적함이 강하게 나타나며 분주하지 않은 시간에는 개인적 사색을 지원할 수 있는 내향적 분위기도 갖고 있어 한국전통 마당공간의 총체적 치유성으로부터의 영향을 보인다. 천창의 빛은 벽면보다 허공으로 직접 도입되어 사람과 직접 만나기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서 볼 수 있던 인간성을 강조하는 빛의 도입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성이나 조형성보다 중성적 공간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 허공 주변으로는 그 볼륨에 비해서 그 허공의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경계면(interface)에 해당하

는 산책로-난간 주변 순환로와 주 계단-가 많음으로 인해 공간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육사도서관(그림10)은 미스 반 데 로에의 바카디사옥과 비슷한 공간의 볼륨을 처리하는 경우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이스 칸에게서 볼 수 있던 벽면을 타고 공간전체로 확산되는 천공광을 도입하고 있다. 이로서 미스 반 데 로에 작품의 내부공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생태적 활력과 공동체성의 치유공간이 표현되고 있으며 빛의 도입과 내면적 이미지에 있어서는 인간성과 공간성이 주로 부각되고 있다.

경주 선재미술관 로비(그림12)에선 계단이 한 방향으로 배치된 점이 다르나 기본적 공간구성은 다른 사례와 유사하다. 즉 수직적으로 너무 깊지 않고 또한 장황하게 거대하지 않아 인간적 스케일을 벗어나지 않고 온화한 한국전통마당과 흡사한 구도, 규모감과 밝기를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전통한국마당에서 볼 수 있는 총체적 치유성의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여기서도 빛은 인간성과 공간성으로 주로 표현되고 있어 직접적인 감성의 치유성을 보이고 있다.

#### 4.2 승효상의 허공 개념

승효상이 도제식 교육을 받은 공간그룹은 작고한 김수근이 창립한 설계사무소로서 대형과 소형 프로젝트 모두를 수용한다. 김수근으로부터 영향 받은 이 그룹의 특징적 전통은 한국 공간의 피난처적 감성을 승화시킨 풍부한 표현력을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 모두에서 발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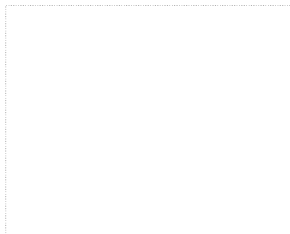


그림13. 김수근, 공간사육 내부 허공

김수근의 제자로서 승효상의 작품에서는 스승작품에서 강하게 보이는 한국전통의 인간적 규모의 친밀성으로 인한 안정감의 치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단순함을 표현하는 경향을 갖으나 다음과 같이 서구적 특성과 결합된 허공개념을 볼 수 있다

산본 제일병원(그림14,15)에서는 허공이 지원하는 세 가지 행태들이 서구전통의 공간에서와 같이 각기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수용되는 점이 강한 특징이다. 이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로와 연관되는 허공의 개념에서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조경이 된 ㄷ-자 중정은 자연과의 교감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꼭대기층의 ㄱ-자 중정은 내향적 구성으로 개인적 규모이

어서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에서와 유사한 사색 행위를 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성은 주로 내부공간인 로비에서 지원되고 있다. 평면적 배치에서 볼 때 이 중정들은 한국전통의 허공인 마당과 같은 위치를 갖고 있으나 단면적으로 실공과 허공 사이에 전이(transitional)영역이 적고 프로그램이 분산적으로 배치되는 특성을 띄어 서구전통의 영향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빛의 도입은 외부공간인 중정에서 이루어지기에 인간성, 시간성, 조형성 및 공간성이 골고루 나타난다.



그림14. 승효상, 산본 제일 병원 1층 Courtyard(좌) 10층 최상층 Courtyard(우)

분당 휴맥스 빌리지(그림15-17)는 검정색 철재와 흰 무암의 어두운 인테리어 마감색채로 통일되어 일견 극단적으로 냉정한 추상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공(solid space)위주로 구성되어온 사무소 건물에서 다양한 성격의 허공 배치를 통해 현대 사무공간에서 요구되는 해소감 및 해방감을 지원하는 독창적 성격을 갖고 있다. 12층 높이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건물 중앙에 하나의 큰 허공이 존재하는 점은 산본 제일병원의 분산적 허공과 확연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5층에서 8층의 바닥이 서로 지그재그로 엇갈려 돌출된 구조임으로 인해 하부로비공간은 공동체적 허공으로, 그리고 상부 하늘 가까이는 사색적 허공으로서의 치유적 지원성이 강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생태적 허공의 특성은 지하의 내·외부 두 허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승효상, 분당 휴맥스 빌리지 중심 허공부

지하 식당 공간 앞의 내부 허공에 둔 얇은 수반은 검정색 인테리어 색채가 주는 중압감을 감소시키며 추상적인 자연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외부와 연계하는 선큰 정원은 물푸레나무로 채워져 있고 밝은 자연 채광을 받아 내부지하의 허공과 함께 사색이나 공동체 공간보다 자연과의 대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지원하는 생태적 허공의 치유적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6. 승효상, 분당 휴맥스 빌리지 로비(좌), 꼭대기층에서 본 허공부(우)



그림 17. 승효상, 분당 휴맥스 빌리지 지하 선큰(좌), 지하층 로비의 수반(우)

이 건물 내부 사무공간 중앙부의 대형허공이 전체를 지배하는 주테마 역할을 하는 면에서 김종성 작품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산본 제일병원의 중심공간인 외부 중정에서와 달리 허공에 자연채광도입 없이 추상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연출함으로서 빛의 도입성격에 있어 인위적인 조형성 및 공간성이 주가 되고 있다. 즉 일차적인 이미지로서 치유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는 비일상적인 색채와 일부 폐쇄적 무채광의 긴장된 환경을 조성하나 다른 생태적 허공의 이미지와 함께 작용하여 상호 대비되면서 상대적인 해방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간접적 잠재성을 표현하고 있다.

표 1. 김종성과 승효상의 치유적 허공개념 요약

	김종성의 허공	승효상의 허공
행태적 치유의 기능(공동체성, 생태성, 사색성)	중심허공에서 통합적으로 기능 -전통 한옥 중정마당의 행태 지원성과 유사	입체적으로 분산되어 기능 -서양 전통 건축의 행태 지원성과 유사
추상적 치유의 이미지 형성(빛을 통한 인간성, 시간성, 조형성, 공간성)	인간성과 공간성을 주로 강조 -직접적 감성의 치유성 표현 -미스, 라이트 및 칸의 영향	조형성과 공간성을 주로 강조 -간접적 감성의 치유성 표현 -꼬르뷔제, 칸의 영향

###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 건축에서 지속적으로 통일성있는 표현성향이 강한 김종성과 승효상 작품에서 나타나는 허공의 자율적이며 간접적인 치유적 개념을 근대건축과 연계된 의미로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여기서 가정된 허공(void space)의 치유성(sense of healing)의 의미란 마이클 베네딕트가 말한 'Emptiness1' 과 'Emptiness2' 개념과 연관되는 '치유적 행태의 지원성'과 '치유적 이미지 변화'이었다. 이들은 치유적 공간 요소의 해석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자는 공동체적 허공, 생태적 허공 그리고 사색적 허공 등의 기능들이었고 후자는 빛을 통해 부각되는 인간, 시간, 조형 그리고 공간 그 자체 존재의 생명력에 대한 이미지들이었다.

그리고 근대(modernism)건축은 서구의 거장 건축가들의 작품사례연구와 동시대 한국건축에서 도시한옥의 중정마당사례를 포함했다. 이는 현대 한국 건축의 체험적 허공 개념 구축에 큰 영향을 준 선례들로 선정된 것으로 내부 오픈 공간, 중정 및 마당의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허공 개념은 근대와 현대건축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체험적인 치유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었다. 치유성의 가치는 정신적 만남의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뿐만이 아닌 자연 및 자아와의 내면적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허공의 행태적 지원성(affordance) 개념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되었다. 즉, 비일상적 여유를 통한 심리적 치유의 측면에서 공동체적 허공(Community Void)은 인간간의 관계에서 Program적인

측면을, 생태적 허공(Ecological Void)은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System적인 측면을, 그리고 사색적 허공(Meditation Void)은 인간과 인간자신 내면의 관계에서 Image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별되어 해석된 것이다.

한국 현대건축의 허공은 다양한 외양적 형태를 보이나 총체적 치유성을 갖는 한국전통공간의 마당에서부터 뿌리 깊은 영향을 받은 흔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김종성과 승효상은 그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강한 표현성을 보여왔다. 김종성 작품에서의 통합적인 구도는 마당의 총체적 치유성의 기능을 재현하고 있으나 전통 마당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던 시적(poetic) 간결성(simplicity)을 통한 내면적 치유의 이미지 재현 측면에선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승효상 작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당의 간결한 이미지가 재현되고 내면적 치유성이 지원되나 총체적 치유의 실질적 기능이 충분히 재현되진 않고 있는 대조적 특성을 보였다.

근대건축의 거장 및 우리 전통 마당이 추구한 공간과 빛은 실공과 허공의 상호경계(interface)를 중심으로 인간 행태 및 심리측면에서 다양한 체험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이는 실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함과 긴장에서 해방되고 또한 안정감을 찾는 치유성(sense of healing)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다.

갈수록 허공의 디자인에 대한 건축가 및 대중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의 한국 건축가인 김종성과 승효상에 대한 이 비교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건축공간의 발전을 위해 미학적인 표현성과 현실적인 치유성(sense of healing)을 결합하는 디자인 사고(thinking)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권영걸, “공간디자인16제”, 국제출판사, 서울, 2001
2. 김광호, “생태적매트릭스공간”, 미건사, 서울, 2004
3. 김광호,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1권 2호, 2005년 7월
4. 김광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후기 작품의 치유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2권 1호, 2006년 3월
5. 민현식의 2인, “비움의 구축”, 동녘출판사, 파주, 2005
6. 전진삼, “김수근과 장세양의 공간사육”, Space time, 서울, 2003
7. 정인하, “김종성건축론”, Space time, 서울, 2003
8. Benedikt, Michael, “For an Architecture of Reality”, 1985, 현실적 건축을 향하여, 계소라, 미건사, 서울, 2002.

9. Buber, Martin, “I and You (Ich und Du)”, 표재명, 문예출판사, 서울, 1980
10. Hoppen, Donald, “The Seven Age of Frank Lloyd Wright”, Dover publishing co. Mineola, New York, 1993
11. Hiroshi Matsukuma, “LOUIS KAHN”, 김인산, 르네상스출판사, 서울, 2005
12. Lind, Carla, “Frank Lloyd Wright’s Usonian Houses”, Archetype Press, Inc. Washington, D.C., 2004
13. Lobell, John, “Between Silence and Light”, 침묵과 빛 사이, 김경준, Spacetime, 서울, 2000